

## 한국의 건축가 11 - 김순하(완)

Korean Architect, Kim Sun-Ha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천득엽 / 전남대 교수  
by Chon Deuk-Yeom

### ◇ 연 재 목 차 ◇

(계재월)

1. 이희태 (9503~9505)
2. 김정수 (9506~9508)
3. 김수근 (9509~9512)
4. 정인국 (9601~9605)
5. 박길룡 (9607~9608)
6. 박동진 (9609)
7. 강 윤 (9610~9612)
8. 이천승 (9701~9702)
9. 김중업 (9703~9707)
10. 배기형 (9710~9801)
11. 김순하 (9802~9803)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난 김순하는 서울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학교를 졸업한 뒤 전남도청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면서 건축계에 첫발을 내딛었다. 이 때부터 선생의 작품활동이 시작되었는데 이들 작품들의 경향은 섬세하고 우아한 것이 특징이다. 그 중에서 근·현대 건축에 기억될만한 몇 가지 작품을 선정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1) 전라남도청

전남도청은 여러가지 역사적 사건으로 점철된 현장이다. 이곳은 일제하에는 전남 민중에 대한 수탈이, 해방 후에는 새로운 억압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졌던 곳이며, 현대로 거슬러와서는 광주항쟁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다. 광주가 전라남도의 행정중심지가 되었던 것은 1896년 8월 4일 나주에 있던 전라남도 관찰부가 옮겨오면서부터다. 한일합방 직후인 1910년 9월 30일 도 관찰사는 도 장관으로 바뀌고, 관찰부를 도청이라고 치면서 광주시 광산동 현 도청 자리에 서양식 목조 단층 건물이 세워졌다. 지금의 청사는 1920~1930년대 전남 유일의 한국인 건축사였던 김순하(金舜河)에 의해 1930년경에 설계되었던 것이다. 초기에 설계된 당시 건물의 형태는 붉은 벽돌을 사용한 2층 조적조 건물이었다. 중앙에 계단을 두고 남쪽으로 실을 배치한 편복도 형식의 건물은 북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는 광주 읍성 때의 동헌(현 도청 광장 분수대 자리)을 바라보고 배치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해방 후 미군정청이 들어오면서 미국의 백악관을 연상시키는 흰색 페인트칠을 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행정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불가피한 증축이 요구되어, 1975년 김태만씨에 의해 현재와 같은 3층으로 설계 증축되고 좌·우에 새로 지어진 건물들과도 확장시켜 연결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원래의 모습을 쉽게 파악할 수가 없는 아쉬움이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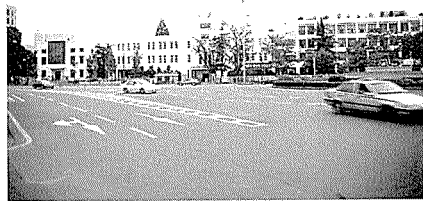
## 2) 전라남도 회의실

본 전라남도 회의실은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에 있는 전남도청건물의 좌측에 자리잡고 있으며 광주지방유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어 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조적조 붉은 벽돌 건물이며 2층의 주공간은 높이가 높게 통칸으로 되고 외부에서 보았을 때 창문이 상하로 나뉘어 있어 밖에서는 3층으로 보이는 아담한 건물이다. 본 건물은 1930년대 광주라는 지방도시에 건립된 건물로는 대단히 시험적인 건물이었다. 도로면의 출입구 상부에서 옥상까지 전면을 수직선을 강조하여 유리로 장식하였고, 건물 前面의 좌우 모서리를 곡면으로 처리한 점과 원형창 및 전면출입구 앞 계단 난간의 곡선처리 등 당시 건물로는 혁신적인 기법이 도입되어 있다.

현재는 붉은 벽돌이 보이지 않게 흰색 칠이 되어 있고 정면 현관 출입구 부분만 석재를 사용한 것이 남아있다. 정면 출입구와 측면 출입구가 내부를 통하여 연결이 되어있으나 현재는 막아놓은 상태이고 전면으로 돌출된 유리 뒤편으로 2층과 옥상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인다.

원래 이 지역은 광주 읍성지가 있던 곳으로 1908-1918년에 걸쳐 樓門이 마지막으로 철거되었는데 그 뒤 현재의 도청 뒤편에 돌무더기 등 약간의 흔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찾아볼 수 없다. 광주읍지 城址條에는 “石築周八千二百五十三尺”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高三尺”이라 하였고 성의 외부는 斷崖絶벽이 있었으며 성의 내부에서는 왕래에 용이하도록 성곽구조가 완벽했던 것 같다.

본 건물은 일제치하에서 활동한 몇 안 되는 한국인 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건축물로 시대를 앞선 선각자적 조형구상이 나타나 있는 점에서 한국 근대건축의 귀중한 작품의 하나로 높이 평가된다. 이 건물은 해방 후 전라남도 평의회회사당으로도 활용되었고 현재는 민원실로 사용되고 있다.



전라남도청 전경



전남회의실 현재 모습(지금은 전남도청 민원실로 사용)



1932년 준공당시 전남회의실 전경  
(자료제공: 김정동 목원대 교수)

1930년대~1950년대 광주의 변화가인 금남로와 충장로 주변에는 한식기와 또는 슬레이트를 얹은 지붕의 단층 목조가구와 조적식 2층의 일식 건물이 섞여 있었고, 금남로는 15m, 충장로는 현재와 같은 7m 정도의 노폭이었다. 개구부는 거의가 목조창틀에 유리를 박아 넣은 형태였으며 상층부는 주택, 하층부는 점포로 이용하거나 단층일 경우에는 전면부를 점포로, 안쪽을 주택으로 이용하였다.

입면의 형태는 하층부를 전면창으로 하고 상층부가 상하로 길쭉한 장방형 창을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전면부에만 타일붙임을 하거나 격자형의 장식을 넣은 것들이 많았다. 일층과 이층의 사이에는 1m 정도의 켈틸레버, 슬레이트 지붕, 천막 등을 돌출시켜 비를 막고 遮光을 시켰다.

## 3) 전라남도 회의실 설계도

- 지정 종 별 :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4호
- 수 량 : 일괄 8매 (총 9매 중 1매 유실)
- 제 작 시 기 : 1930년대 초 (건물은 1932년 준공)

○ 건물 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1번지  
설계도는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국공용의 건축언어이다. 특히 설계도면은 건축적 작업 중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창작활동으로 장차 이루어질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설계도는 작가의 내면세계를 건축적 언어로 나타내주는 귀중한 예술작품이다. 즉 건축가들은 일차적으로는 설계도면으로 자기의 작품세계를 얘기하고 이차적으로는 완성된 작품으로 검증받게 된다. 결국 설계도면이란 건축인들이 추구하는 건축적 삶의 장이며, 건축인들의 연륜이 새겨진 얼굴인 것이다.

설계도면은 이처럼 건축인들에게는 의미가 깊은

것이지만 우리의 선조 장인들이 그들의 기능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꺼린 탓인지 전통적인 한국건축의 조영과정에서는 건축도면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營建儀軌類等에는 부분적으로 건축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붓으로 그린 초기적 外襟圖일 뿐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설계도면은 조선조 말경 개화기에 이르러 외국인들에 의하여 현대적 건축도면들이 한국에 소개되면서 알려졌을 것이라 짐작된다. 특히 외국인들이 그들의 주거나 관공서를 건립할 때 그들의 풍토나 기호, 습관에 맞는 건축을 우리 땅에 건립하면서 자연스럽게 건축기술이나 재료, 특히 설계도면이 소개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설계도면은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에게 현대건축을 배운 한국인 건축가 김순하가 작성한 것으로 이 설계도면이 지나는 의미는 대단한 건축사적 가치를 갖는다 할 것이다. 즉 단순한 건축작품을 그린 도면이라기 보다는 일제시대에 전라남도청 영선계에서 일본인들에게 현대식 건축기술을 배워 당시 광주에서는 파격적인 건축을 계획하고 축조하여 오늘에 남긴 선각자적 의미를 나타낸다 할 것이다. 즉 아직까지는 전남지방에서 이 보다 앞선 설계도서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설령 이 보다 앞선 시기의 것들이라도 家圖정도에 불과한 배치도의 성격만을 지닌 것들이라 할 것이다. 본 도면은 종이류 위에 가는 필과 검정색깔의 먹으로 그린 것이라 판단된다. 본 도면은 평면도와 단면도, 입면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縮尺, 재료표시, 鐵筋配筋圖, 도면번호 등이 나타나고 있어 현대건축의 도면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다. 정면도와 측면도는 100분의 1이고 상세도는 20분지의 1의 축척을 하고 있다.

당시 광주에서는 시멘트나 철근 등 건축자재가 아주 희귀할 때였는데 도청과 도청회의실 공사는 콘크리트 라멘조의 형식을 취한 2층 건물로서 완벽할 정도로 구색을 갖춘 건축공사였다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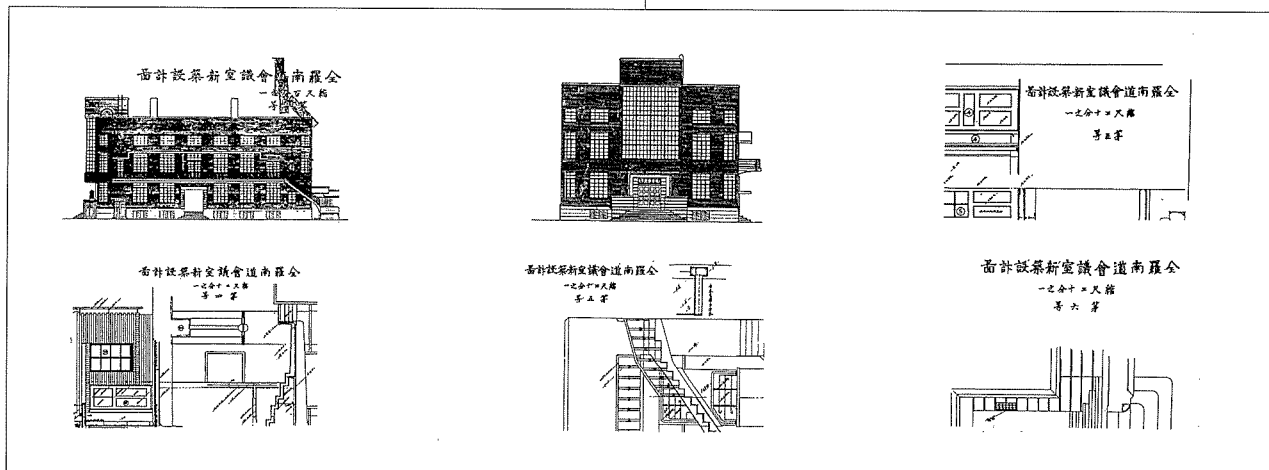
광주에서 당시 활동하였던 원로 건축인들의 말에 의하면 철근이 없어서 드럼통을 잘라서 철근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 건물은 철근의 두께와 배근간격까지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고 벽돌과 유리, 철근과 철재 강재를 사용하여 소위 국제주의적(?) 양식을 갖추려 한 콘크리트 라멘조의 3층 건물로 대단한 역사였을 것이다.

본 도면은 일제시대에 건축물을 그린 설계도면으로서 전남광주지방 최초의 현대식 건축설계도면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건축을 조영할 때 우리의 선조 장인들이 설계도면을 사용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설계도는 의미가 큰 작품이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시기나 혹은 훨씬 이전 외국의 경우는 대부분 건축가의 작품을 보여주는 도면이나 건축모형을 박물관에 잘 보관하고 있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즉 르네상스시대 건축작품의 모형이나 설계도면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의 처지가 이해될 것이다.

#### 4) 춘목암

김순하에 의하여 설계된 春木菴(전 광주미문화원)은 당시 광주에서 가장 인기 있고 규모가 큰 한국식 요리집이었다. 춘목암은 황금동 80-81번지에 있었는데 4백41평의 넓은 대지에 연건평 2백21평의 큰 규모였다. 1917년 마산에서 광주에 온 李春實은 황금동 네거리 콜박스 부근에서 우동집을 시작하였다. 그의 뛰어난 요리솜씨와 타고난 근면성 그리고 정직한 경영으로 우동집은 해를 거듭할수록 번창하여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다. 그 덕으로 지금의 리버사이드호텔 자리 황금동의 넓은 부지에 저택도 갖게 되었으며 구 광주미문화원자리를 사서 1925년경 춘목암이라는 요리집을 차렸다. 사업은 순조로웠으나 이춘실은 병



전남회의실 도면

을 얻어 1929년 세상을 떠났다. 당시 아들은 어려서 그의 여동생인 李珍이 남편 趙成海과 함께 요리집 경영을 맡게 되었다. 춘목암은 조성순의 능란한 사업솜씨에 의하여 날로 번창하였으며 옆의 목욕탕까지 사들여 새로 건물을 지었으며 1933년경 무등산 기슭 중심사 입구에 각종 나무를 심은 대규모 정원에 분수까지 갖춘 호화스런 춘목암 별장(현 삼애산장)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김순하의 작품인지 분명하지 않다. 김순하는 춘목암의 경영자였던 조성순의 요청에 의해서 건물설계를 맡았다. 그후 춘목암은 해방 직전 일제의 전시체제 전환에 따른 유흥업소 정비로 폐쇄되었고, 건물은 순천철도국에 매수되어 광주보선구 사무소의 직원합숙소로 사용되었다. 해방 후 이 건물은 敵産으로 처리되어 미군 숙소와 미군 장교구락부로 이용되었다. 그러다가 1919년 9월에 광주 미국공보원으로 사용되었고, 1970년대 후반에는 광주 미국문화원으로 개칭되었다. 현재는 옛 건물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주차장건물이 들어섰다. <조선과 그 예술>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일본 동양대학교수 야나기(柳宗悅)가 1937년 이곳에 들러 당시 호남은행장인 현준호에게 저녁대접을 받은 이야기는 더욱 흥미롭다.

### 5) 김순하의 생각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김순하의 생가는 200여 년 전에 세워졌다. 강원도에서 유형문화재 제 84호로 지정되었으나 현재 소유자인 김동성(선생의 막내 동생 아들)씨가 문화재 지정취소를 한 건물로, 지금은 유지 보수가 개인의 자력으로는 어려워 문화재 재지정을 바라는 상태이다. 김순하의 섬세하고 우아한 작품 경향은 선생이 태어나고 자라온 생가가 규모는 작으면서도 섬세하고 여성적인 단아한 기품을 풍기고 있어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져 선생의 작품은 아니지만 그의 생각을 소개한다.

건물의 향은 남향으로서 안채는 안방과 부엌을 왼쪽 뒤편에 배치하여 남성공간이 형성되도록 하고, 사랑채는 오

른쪽 앞 편에 배치하여 남성공간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진입동선도 남녀공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외양간과 거름더미를 경계로 하여 남녀출입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였다.

처마드리 높이에 있어서는 전면부(3.3m)를 후면부(3.0m)보다 높게 만들어 안채부분에 있어서의 채광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대청의 전면부분은 개방되고 후면은 전부 벽으로 폐쇄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壁龕은 대청왼쪽 뒤벽 상부에 두어 조상의 신주를 모셨다.

집안에서의 다른 공간에 비해 부엌 면적이 가장 넓어 이는 집안의 대소사를 위한 여성들의 작업공간 및 식품보관 저장고로서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뒷간 사용에 있어서는 남녀구분이 명확하다. 안채에는 여성전용인 內廁이 부엌 쪽인 오른쪽 바깥마당에 설치되었으며, 남성전용인 外廁은 사랑채 바깥마당에 떨어져서 설치되었다.

뒤안은 안채부엌과 통하도록 하고 사랑채 쪽의 바깥마당과는 격리되게 토담을 설치하여 여성만의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 <참고 문헌>

- 천득염, 광주지방의 일제치하기 건축, 안당 임영배교수회갑기념논총, 1992.
-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40년사, 1985.
- 전라남도지 및 광주시사
- 박선희, 광주백년 2, 금호문화, 1994
- 정근식 외3인, 근현대의 형성과 지역 엘리트, 새길신서 40, 김순하, "근대건축사의 큰 별" (김순하의 해방 후 건축설계 활동은 유경철씨의 증언에 의함)
- 최장순, 김순하선생의 생가에 대한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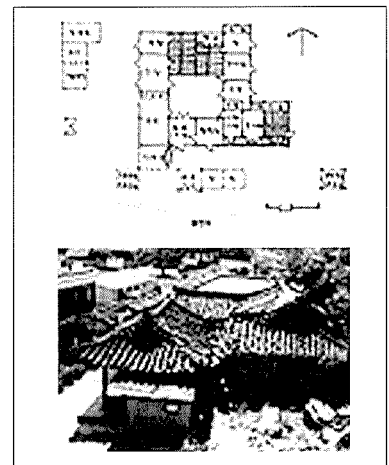
전남회의실 계단내부



대청성이 강조된 전면부



건물 모서리의 곡면처리와 개구부



김순하 생가

(자료제공: 최장순 동해전문대 전임강사)